

학술초점

선전연구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 28일

보조사상연구원(원장 현호스님) 제1차 선전연구 발표회가 28일 오전 10시 서울 법원사 불일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보조의 삼중문의 성격에 관하여(최연식·서울대 국사학과) △종일의 사상과 비교(이병욱·고려대 철학과) △돈오점수의 철학적 기초(이창구·전북대 철학과) △보조의 간화선 문제(박영재·서울대 국사학과) △보조의 회통철학(인경스님·동국대 선학과) 등의 논문 발표를 통해 21세기 한국선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역경 제대로 하려면 티벳-팔리어 연구선행”

전재성씨 주장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당시의 원음으로 알기 위해서는 티벳어와 팔리어 연구 등 언어학적 측면의 역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박학리성전협회장 전재성씨는 ‘현존 대장경에서의 역경의 문제점’이란 제하의 논고(論考)를 통해 ‘범어와 티벳어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범어문헌의 연구를 위해서는 티벳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는 티벳어나 팔리어 연구를 통한 범어원전 역경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분사형이 명사화된 것으로 중국에서 번역될 때에 ‘아라한’으로 음사되거나 ‘공양’을 받은 만한 가치 있는 분’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반열반경> <법화경소> <아미타경소> 등에서는 ‘번뇌라는’ 적을 죽이는 자’의 의미인 ‘살적(殺敵 = 怨敵)’으로 잘못 번역돼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범어 Arhant에 브라그리피어(=범어의 속어) 문법을 적용해 Arhant로 잘못 분석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즉 An는 ‘적’이란 뜻이고 hant는 ‘죽

세제 각국에서 번역된 경전들도 번역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번역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근세에 번역된 경전들은 원전 언어의 형식을 중요시하여 원문의 문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올해 말 동국대 역경원이 <한글대장경>의 완간을 앞두고 있어 역경사업의 보완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문대장경 그대로 한글화 ‘오역우려’ ‘범어원전 직역 한글대장경 보완해야’

이는’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서 나온 오역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불소환찬·佛所行讚>의 경우 담무한(曇無讖)의 한역은 부처님의 탄생을 ‘점차적으로 모태에서 출생했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점차적으로’에 해당하는 범어 kramena가 ‘적시에, 올바른 때에’란 뜻의 부사로 고대 인도문헌에서 쓰이고 있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또 전씨는 ‘19세기말 20세기초,

체상의 특징을 번역문에 그대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전씨는 ‘대승경전 역경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오류는 번역이 ‘문법’이라는 언어학적인 이해와 ‘내용’이라는 해석학적인 이해의 정합성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며 ‘세계 여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교학의 학문적 성과를 수용하고 비교, 번역하기 위해서는 티벳어를 비롯 많은 언어를 습득해 문법과 해석의 정합성을 추

김정은 기자

학술단신

선무학회 회지 발간

한국선무학회(회장 김철) 회지 제7집이 28일 발간된다. 국제 학술교류를 위해 영문판으로 발간되는 이번 회지에는 동국대 김용표 교수의 ‘공의 단정법적 논리와 명상수행-중관학과 입장에서’를 비롯 선재욱·선무용·선미희 등 선 관련 논문이 수록될 예정이다.

동국대학원 연구논집

동국대 대학원 연구논집 제27호가 발간됐다. 이번 연구논집에는 △천태지지의 정토수행 연구(김은희·불교학과) △관정오위(禪正五位)의 고찰(김호규·선학과) 등 인문과학분야 논문 5편을 비롯 97년 발표된 총 27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위덕대 출판부 설립

위덕대학교(총장 손재석)는 2일 대학본부 부속기관으로 출판부를 신설하고 경주시청에 등록을 마쳤다. 학술연구성과물의 출판 및 교양·전공서적 출판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0561)760-1026

보존과학 학술발표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회장 김유선)는 20일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에서 정기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석조문화재의 보존대책에 관한 고찰> <환경오염에 따른 문화재 보존>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여시아문’ 이해 노장적 세계관”

허인섭씨 ‘금강경 오가해에 나타난...’ 발표

“<금강경 오가해>에 나타난 혜능과 아부의 주석에서 그들은 아(我·Atman)를 세계의 중심으로 파악하며 본질주의적 자아 개념을 개입시키고 있다.”



용, 오히려 복잡하게 이해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불교가 인도불교를 그대로 수용했다기 보다는 철저하게 노장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도가와 불가의 인간의 개념적 사고의 한계를 인지한 것으로 보는 평가에 대해 허씨는 “그들의 세계 이해 또는 이상을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는 명백하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도가가 대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주관과 객관의 합일을 강조한 반면, 불교는 인간의 인식론적 조건 또는 인식기능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고통을 분석하고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인섭씨(연세대 철학과 강사)는 14일 한국종교학회 학술발표회에서 ‘금강경 오가해(五家解)에 나타난 혜능(慧能: 638~713)과 아부(阿父)의 여시아문(如是我聞) 주석의 문제점 고찰’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불교가 형이상학적인 아트의만의 개념을 비판한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도가적 존재론에 보다 더 근접해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 허씨는 “부처님의 설법을 그대로 전한다는 형식적 도입구절인 ‘여시아문’에 대해 혜능과 아부는 노장적 세계관을 적

“여시아문’ 이해 노장적 세계관”

허인섭씨 ‘금강경 오가해에 나타난...’ 발표

“<금강경 오가해>에 나타난 혜능과 아부의 주석에서 그들은 아(我·Atman)를 세계의 중심으로 파악하며 본질주의적 자아 개념을 개입시키고 있다.”



용, 오히려 복잡하게 이해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불교가 인도불교를 그대로 수용했다기 보다는 철저하게 노장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도가와 불가의 인간의 개념적 사고의 한계를 인지한 것으로 보는 평가에 대해 허씨는 “그들의 세계 이해 또는 이상을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는 명백하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도가가 대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주관과 객관의 합일을 강조한 반면, 불교는 인간의 인식론적 조건 또는 인식기능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고통을 분석하고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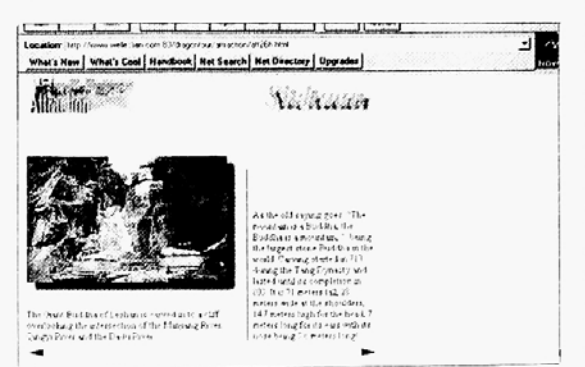
앙코르와트 선사유적 발견

美 항공우주국, 저수지·운하 등 흔적찾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앙코르와트 사원, 최근 첨단 장비의 도움으로 그 신비의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특수레이더 장비로 항공촬영한 데이터를 종합분석한 결과 역사에 기재된 앙코르왕국(637~1432)보다 훨씬 이전의 앙코르문명 흔적이 드러났다고 최근 발표했다. 영국 런던대 고고학자 엘리자베스 무어교수는 “앙코르문명은 현재의 사원이 대표적이지만 물관리와 관계된 저수지 운하 등 방대한 건축물에도 그들의 위대함이 있는 것으로 레이더 탐사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명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저수지 지역은 앙코르와트 사원 25km지점으로 NASA측은 축구장 만한 크기의 선사시대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92년 등재된 앙코르와트 사원.



드래곤 여행

중국불교의 성지로 꼽히는 4대 명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이트로 산서성의 오대산, 절강성의 보타산, 사천성의 아미산, 안휘성의 구화산 등 중국의 관광명소 31곳의 역사·유적·연구논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보현보살을 모신 불교 성지인 아미산은 3천99m에 달하는 거봉에 1백여개의 사찰이 은거해 있다. 아미산의 불교유적중 낙산에 위치한 낙산좌불이 단연 으뜸. 감을 깎아 만든 석불로 세계에서 가장 크며 조성에만도 90여년이 소요됐다. 낙산좌불 이외에도 ▲아미산 ▲아미산의 원승이와 절경 ▲아미과의 무공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아흔아홉 봉우리를 자랑하는 구화산은 9세기 말엽부터 지장보살을 모신곳. 현재 50여개 사찰과 6천여개의 불상이 보존되어 흥성했던 불교의 자취를 보여주는 곳이다. ▲구화산 축제 ▲구화산 ▲안휘성 등의 사진을 볼 수 있다. 산서성의 북쪽에 있는 명산이며 청량산으로도 불리는 오대산(3천58m)은 문수보살을 모신 중국불교 성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병성에 왔다. 기묘로교수(美 아리조나대학)의 논문 ▲산서성 오대산의 세월하산(歲月河川)을 비롯해 ▲오대산 해돋이와 석양 풍경 사진을 열람할 수 있다. 보타산은 858년 관음보살의 율화, 설법지로 알려지면서 보제사, 범우사, 해제사 등 성지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절강성과 서호 ▲보타산 ▲해제사 등의 정경을 감상할 수 있다. http://www.wellesian.com/dragontour/attraction/

국제소식

대만機 추락현장 스님들 수습앞장 대만의 스님들이 16일 추락한 여객기 탑승자 시신을 수습하고 탑승객 유가족들의 슬픔을 덜어 주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고 수습에 참여한 스님들은 구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고 지점으로 달려와 탑승자 시신을 수습하고 불타고 있는 비행기 잔해와 건물들을 진화했다는 것. 또 사고 여객기 유가족이 추락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제단을 만들어 위령제를 지내고, 유가족들이 차분히 DNA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DNA 검사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시신 소장된 달라다 말리기바 사진 등이 있다.

Large advertisement for Buddhist publications and events. Includes 'Sachal, 그 속에 깃든 의미' by Kim Hyunjun, 'Gwanimsinang' by Kim Hyunjun, and 'Baboga Doga' by Kim Hyunjun. Also mentions a 2nd Buddhist Literature Award and a Buddhist Fair.